제12강 인문정신의 발흥: 공자와 그의 시대

(1교시)

공자(孔子, BC552~BC479)

서주(西周)가 기울자 주(周)왕조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이 때 이후를 동주(東周)라 한다. 그러나 동주(東周)는 유명무실해서 실제로는 제후(諸侯)들의 난립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동주(東周) 시대는 또한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이기도 하다.
주(周)는 봉건제(封建制)를 실시했으며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지탱되었다. 농민들은 예농(隷農)이었고 왕조에 무거운 세금을 물었다. 형법제도 역시 잔인하고 가차 없었다. 이 시대에는 예(禮)와 형법(刑法)이 중요했다.

주(周)는 은(殷)을 치면서 '천명사상(天命思想)'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했다.(殷의 제帝에 대한 周의 天) 종교적 질서는 혈연적 질서와 일체를 이루었다. 귀족들의 정체성은 '덕(德)' 개념을 통해 규정되었다.

동주(東周)에 들어와 부역으로서의 '조(助)'가 조금씩 현물세인 '공(貢)'으로 바뀌어갔다. 농업혁명을 통한 부농의 등장, 신분의 와해를 비롯한 여러 사회 현상들이 분출했다.

(2교시)

공자는 이 시대를 '천하무도(天下無道)'의 시대로 파악했다.
이 때에 새로운 신분인 '사(士)' 계층이 등장했다. 공(公), 경(卿), 대부(大夫) 아래에서 봉급을 받으며 전문가 역할을 했던 이 계층은 소피스트들과 비교된다. 공자는 이 계층을 '군자(君子)'로 키워 진정한 지식인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www.artnstudy.com

▲ 공자(孔子)라는 사람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

(「위정(爲政) 4」)

吾嘗終日不食 終夜不侵 以思無益不如學也
오상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무익불여학야

(「위령공(衛靈公) 30」)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아비생이지지자 호고민이구지자야

(「술이(述而) 19」)

老者安之 朋友信之 小者懷之
로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

(「공야장(公冶長) 26」)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朋友自遠方來 不亦樂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붕우자원방래 불역낙호,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학이(學而) 1」)

(3교시)

▲ 당대 현실의 인식

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
소인부지천명이불외야 압대인 모성인지언

www.artnstudy.com

(「계씨(季氏) 8」)

▲ 정치사상

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貧而患不均 不患寡而患不安
구야문 유국유가자 불환빈이환불균 불환과이환불안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개균무빈 화무과 안무경

(「계씨(季氏) 1」)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관즉득중 신즉민임언

(「요왈(堯曰) 1」)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
위정이덕 비여북신 거기소 이중성공지

(「위정(爲政) 1」)

▲ 군자(君子)를 양성하다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흥어시 입어예 성어악

(「태백(泰伯) 8」)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尙之風必偃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초, 초상지풍필언

(「안연(顔淵) 19」)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군자부중즉불위 학즉불고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학이(學而) 8」)

www.artnstudy.com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불환인지불기지 환부지인야

(「학이(學而) 16」)

공자는 당대에는 크게 뜻을 펴지 못했지만,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냄으로써 사상가와 교육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공자 사후 그를 이으려는 많은 유자(儒者)들이 나왔으며, 한무제(漢武帝)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중국의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현대 중국에 이르러 공자는 반동적인 사상가로 낙인찍혀 크게 폄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자는 최초의 교사였으며 위대한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www.artnstudy.com